



미국 · 영국 퇴직연금 이전거래 증가

이경아 연구원

■ 최근 미국과 영국의 퇴직연금 이전거래(pension transfer or bulk annuity)가 증가하는 추세임.

- 퇴직연금 이전거래는 연금사업자가 보험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(defined benefit plans) 관련 지급부담을 이전하는 거래임.
 - 미국의 경우 현재 기업연금의 25%가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이전하였거나 향후 이전할 예정임.¹⁾
 - 영국의 경우 2016년 약 1,200억 파운드의 연금부채(pension liability)가 퇴직연금 이전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5년 대비 20% 정도 증가한 규모임.²⁾
 - 미국과 영국의 퇴직연금 자산비중은 OECD국가들의 총연금자산대비 각각 56.3%, 10.8%이며 자국 GDP대비 83%, 100.7%임.³⁾

■ 퇴직연금 이전거래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연금사업자의 위험관리 수요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점이 서로 부합되기 때문임.

- 고령화로 늘어난 수급자의 기대여명은 연금사업자의 연금비용⁴⁾을 증가시켰으며, 이로 인해 퇴직연금 이전거래에 대한 연금사업자의 위험전가 수요가 높아짐.
- 보험회사는 연금사업자에 비해 장수위험 및 투자위험 관리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님.

1) Clear Path Analysis(2015), "Pension plan de-risking", North America.

2) Financial Times(2016. 1. 13), "Bulk annuity market prepares for jump in activity".

3) OECD(2014), "Pension markets in focus".

4) 연금비용(pension cost) = 연금부채(pension liability) - 연금자산(pension asset) ± 기타 조정사항

■ 향후 퇴직연금 위험전가 관련 상품혁신, 솔벤시 II 규제 적응,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퇴직연금 이전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첫째, 상품측면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한 위험인수(medical underwriting)가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이전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 - 의료정보를 반영한 퇴직연금 이전거래(MUBAs: Medically Underwritten Bulk Annuities)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이전거래에 비해 효율이 10% 정도 저렴함.⁵⁾
 - 2012년까지 퇴직연금 위험전가 시 의료정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의료정보를 활용한 위험인수 비중이 3%에서 2015년 15%로 크게 증가하였음.
- 둘째, 보험회사는 솔벤시 II 도입 준비 단계에서 자본비용 부담으로 퇴직연금 이전거래를 기피하였으나 2016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퇴직연금 이전거래를 증가시킬 계획임.
 - Deloitte는 2025년까지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위험인수 및 이전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⁶⁾
- 셋째, 금융시장에서 향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 부담이 감소해 퇴직연금 이전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 - 저금리 상황에서 역사상 최저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서 손실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연금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음.
 - 일각에서 저금리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리 변화 시 퇴직연금 이전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⁷⁾ **kiri**

5) Pensions Institute(2013), "A healthier way to de-risk".

6) Financial Times(2016. 1. 24), "Insurers told to take on more pension risk".

7) Milliman(2015), "New opportunities for life insurers on pension risk transfer".